

6·4 지방선거 표밭 점검

무소속 4명 '3선 제동' 도전

'한솔밥' 군수·기획실장 대결

장흥군수

장흥군수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이명훈(65) 현 장흥군수의 3선 도전에 맞서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장흥의 6·4지방선거 분위기는 그 어느 곳보다 뜨겁다.

안정적인 독주를 지속하는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지세력이 탄탄한 무소속 후보들이 의외의 선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	이명훈(65)	위두환(48)	정중순(59)	김성(54)	최경석(50)
경력	·민선 5기 장흥군수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전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제 6·7대 전남도의원	·전 전남도의원
주요 공약	·친환경 목재산업단지 구축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유치 ·한우유전자연구소 민자유치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수립 ·농기계 임대사업 정상화 ·농어업 기반시설 확대	·중도버스·택시 운영 ·노인복지센터 건립 ·경로당 관리인도유미 도입	·장흥읍 관련 주민지원사업 ·유기농 생태체험관 리모델링 ·표고유동단지 활성화	·농어촌버스공영제 ·고등학교 무상급식 ·친환경유기농 4차재 공급

독주 후보 없어 무소속 단일화가 최대 변수 종친회 중심 지지후보 뚜렷 '혈족 선거' 양상

적인 경제 발전 사업을 펼쳐 탄탄한 지지층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국내 첫 친환경목재산업단지 구축 ▲한우유전자연구소 민자유치 ▲노력한 국가연안항 승격 ▲장흥읍 서부지역 병·의원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통합진보당 위두환 후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맡는 등 오랜 시간 농민회 활동으로 터를 닦았다. 찾아가는 마을노인학교 개설을 비롯해 ▲공동체 밥상 도미 사업 ▲우리 동네 주치의 제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정중순 전 전무는 33년간 농협중앙회에 근무하는 등 농촌 전문가로 통한다. 농협 조합원들의 지지 등을 기반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3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버스와 택시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센터를 건립

하는 등 노인 관련 공약과 장흥의 교통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빅 3'로 분류되는 김성 전 도의원은 2007년 재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등 두 차례 군수 도전하는 등 인지도가 높다는 게 강점이다. 그는 그동안 장흥지역 선거 판세를 좌우해온 남부권 출신이라는 장점과 20여 년간 정치 현실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여성층과 공직사회를 상대로 지지층을 넓혀 가고 있다.

전남환경운동연합 상임이사를 지낸 최경석 전남도 의원은 장흥군 의원을 역임한 뒤 곧바로 도의원에 당선되는 경험이 풍부하다. 현 군수의 '개발과 성과 중심의 행정'에 맞서 '안정과 화합 위주의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아래 표식을 다지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수

강진군수 후보

강진의 6·4지방선거는 현 강진원(54) 군수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한 때 한솔밥을 먹었던 장경록(58) 전 강진군청 기획정책실장이 강 군수의 재선에 도전장을 내던졌다. 군수와 기획실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두 공무원의 한 판 승부라고 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출마가 예상됐던 후보들이 일찌감치 마음을 접어 선거판이 의외로 달아오르지 않고 강 군수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별다른 선거 이슈와 변수도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강 군수는 지난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 군수는 행정전문가 출신답게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과 함께 '일 잘하는 젊은 군수'라는 이미지가 강해 지역 여론도 좋다.

또 강 군수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74%대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정도로 지지기반이 견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선에 당선되지 2년여 남짓밖에 되지 않아 재선에 대한 유권자의 반감도 적다는 게 강점이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남도 기업도시 기획단장을 지낸 강 군수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2년여 남짓 군정을 이끌면서 대·내외적으로 대형사건·사고 하나 없는 군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강진 황금 한우 명품화 사업 30억원,

농어촌 도서관 육성사업 16억원 등 38건에 총 235억원의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등 52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공모사업의 3배 증가한 수치로, 강진 군정 사상 최대 규모다.

그는 민선 6기 주요 역점 사업으로 ▲국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 통한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이름	강진원(54)	장경록(58)
경력	·현 강진군수	·전 강진군청 기획정책실장
주요 공약	·강진고 지역거점고 지정 ·미량~제주간 여객선 운항 추진 ·기업유치·인구증가 기반 조성	·어업인 공동작업장 건립 ·마을 경로당 공동생활지로 전환 ·강진만 주변 오토 캠핑장 설치

현군수 독주속 큰 이슈·변수 없어 선거판 차분 공직경험 강점...예산 증대·영어 타운 등 공약

관광객 유치 ▲강진 미(美) 프로젝트 추진 ▲강진 월출산권 문화·역사·체험 관광명소 개발 ▲호남권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 및 경비행장 유치 ▲마량권역 해양레저 휴양도시 조성 ▲여주·콜라비 등 특산물 집중 육성 ▲명품 '강진 한우' 일등 브랜드 육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주요 정책공약으로 ▲군 예산을 현재의 3500억원 수준에서 두 배 수준인 7000억원대로 확대 ▲농축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의 경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전문화, 첨단화 시스템을 도입 ▲농축수산물을 가공하는 소위 말하는 6차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연찬 프로그램을 추진 등이었다.

이에 맞서는 장경록 후보는 전 강진군장 출신으로 군 건설과장, 기획정책실장

(기술서기관·4급)을 거쳤고 군수출마를 위해 명예퇴직 했다. 40년 공직경험의 바탕과 지역에서 나고 자라며, 강진에서 공직생활을 해온 토박이 인물임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60여년을 강진에서 살아왔다는 점과 이를 통해 지역현안 문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고 문제 해결방법을 알고 있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주요공약으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어업인 공동작업장 건립 ▲마을 경로당 공동생활지로 전환 ▲강진만 주변 오토 캠핑장 설치 ▲강진영어타운 정상화 ▲마량항 요트 계류장 설치 ▲광역상수도 확대보급 ▲각종 관공공사 의견수렴 창구운영 등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

1·2선거구 모두 3파전...진보당 지지세력 만만찮아

도의원

장흥은 제1선거구(장흥읍, 부산, 유치, 장동, 장평면)와 제2선거구(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무소속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는 게 특징이다. 농민회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진보당 지지 세력이 만만찮아 지난 선거에서도 제2선거구에서 통합진보당이 당선되기도 했다.

1선거구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충식(49) 후보는 박준영 전남지사 비서관

을 지내는 등 정치적 인맥이 넓다. 통합진보당 박형기 후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장을 지냈고 무소속 문경렬 후보는 농협 근무 등 풍부한 경험을 앞세워 표밭을 공략하고 있다.

2선거구에는 통합진보당 정우태 전남도 의원의 의원직 수성 여부가 관건이다. 정현 의원은 장흥군농민회 회장을 지내는 등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지지기반이 탄탄하다. 또 장흥군의회를 지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준 후보는 전 민주당 중앙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무소속 김원봉 후보는

장흥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이충식 (49·민·장흥군수 비서관) 박형기 (59·진·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남 지역본부장) 문경렬 (61·무·전 농협근무)
제2선거구	김광준 (61·민·전 장흥군의원) 정우태 (52·진·제9대전남도의원) 김원봉 (63·무·전 농협 전무)

※민=새정치민주연합, 진=통합진보당, 무=무소속
농협 전무를 지내 풍부한 인맥이 강점이 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1·2선거구 모두 양자구도...새정치연합에 진보당·무소속 도전

도의원

군수 선거 못지 않게 전남도의회를 뽑는 장흥 선거구의 분위기도 아직은 잠잠하다. 두 곳의 전남도의원 선거구 모두 일대일 양자구도도 전개되고 있고, 1·2선거구 모두 현역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단수공천을 받고 재선에 도전한다.

제1선거구(강진읍, 성전·도암·신전면)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광역재 현 도의원이 재선에 나서고 있다. 그는 ▲8대 기초

매 시장(우시장) 시설개선 ▲어업인 보험료 부담완화 ▲가우도 개발사업 예산확보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맞서는 강광석 통합진보당 후보로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 전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지냈다. 그는 ▲전남도 벼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한 실질 쌀 소득 보장 ▲전남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제2선거구(군동·질량·대구·마량·작전·병영·움천면)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진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광영재 (66·민·제9대전남도의원) 강광석 (43·진·국회의원 비서관)
제2선거구	윤도현 (70·민·제9대전남도의원) 김용호 (55·무·전 강진군의원)

※민=새정치민주연합, 진=통합진보당, 무=무소속
윤도현 도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에 뛰든 김용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





TV조선 특별기획드라마

보릿속의 연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했던 이들의 사랑과 야망!

기획 TV조선 제작 강호 트로이켄 크리에이터 정성희 극본 이한호 연출 김상래

최수종 손태영 류진 최철호 이인혜 독고영재 정호빈 4월 25일부터 매주 금·토 밤 11시 방송

박상면 홍일권 김진근 이종수 공정환 이정용 최규한 이기찬 현석 김민경 전수경 이철민 고명환 정명환 이영후 이원석 조영서 김권 김예원 윤홍빈 김현준